

지 상 범 석



“평소 행동 생각이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9)

孤山圓法師 示學徒 (고산원법사 시학도) ③

抑又戒法宗大小異學 悉自佛心而流出
 意存法界而同歸 既而未曉大猷
 의존법계이동귀 기이미묘대유
 於是 各據所據 辯經論以法律 爲藥物
 어시 각권소거 승경론죽이계를 위기를
 宗律部則以經論 爲藥毒
 宗律부죽이경론 위빙허

는 게 없고 백관의 일이 다 왕을 위한
 과 같다(여러 종파의 가르치는 일이 다
 부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한 종파를 수호하기 위해 못 흐름을
 가로 막고 한 관직을 지키고자 여러 버
 슬자리 폐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原夫法王之聖化也 總攝群品 各有司存
 원부법왕지수화야 총섭군품 각유사존
 小律 比禮刑之權 大乘 類辨衡之任
 소를 비례형지권 대승 류균형지임
 應福 如同於灑曉 聖賢 若掌於王言
 영복 여사어조만 제찬 약장어왕언
 在國家之巨迹咸修 類我教之群宗 競演
 재국가지백리함수 류아교지군종 경연
 光明此旨 豈執異端
 과명차지 기집이단

대개 법왕이 교화를 함에(트리움에)
 모든 계층을 다 포섭하여 각기 관할을
 두게 하니 소승·유종은 예·형의 권한
 (요즈음의 문교·법무권한)에 비교되고
 대승은 저울 같은 소임(총리역할)이요
 복을 다스리는 배나 수레를 운전하는
 것과 같고 글을 지음은 임금의 말을 기
 록함과 같다.

나라에서 백관에 다 수행할 바가 있

또한 계와 예로 종을 나누어(유종과
 유종) 대소간에 다른 것 같으나 모두
 다 불심으로 부터 나온 것이니
 뜻을 법계에 두고 하나로 돌아갈 것
 이거늘(삼승 귀일) 기왕에 큰 법을 깨
 치지 못했는지라
 이에 각기 근거하는 바에 매달려 경
 론을 익힌 즉 계율을 버릴 물건이라 하
 고,
 율종을 으뜸 삼은 즉 경론을 쓸데 없
 는 일이라 한다.

晉大法者則 滅沒小乘
 승대법자즉 멸몰소승
 聽小乘者則 聽受大法
 청소승자즉경혜대법

대승법을 익힌 이는 소승을 묵살하고

“너와 나 둘로 보지않고 화합바다 이루면 서로 서로 제도하여 인연 무르익으리라”

소승법을 들은 이는 대승을 업신여기
 나니

但見人師 偏讚 遂執之而互相是非
 단경인사 편찬 수집지이호상사비
 不知無常常態 苟違之而不見彼此
 기지불의상용 구달지이불견피차
 應當互相成濟 共熟機緣
 응당호상성제 공숙기연

는 것은 우리 교의 여러 종파가 다투어
 법을 펴는 것과 같으니
 이 뜻을 밝히보면 어찌 (서로서로)
 이단이라 고집하겠는가.

當須盡己才能 隨力演布
 당수량기재능 수력연포
 性敏則學 偶善 識深則門 是宜
 성민칙결학 위선 식천즉전문 시의
 若然者 雖各播風猷
 약연자 수각파풍유
 而共成慈濟 同歸和合之海 共坐勝觀之床
 이공성자제 동귀화합지해 공좌해탈지상
 夫如是則真迷途之指南 教門之木鐸也
 부여시즉진미도지지남 교문자목탁야

모름지기 자기의 재능을 헤아려 힘에
 따라 널리 포교함이 마땅하되

성품이 영민하면 결하여 배우는게 좋
 고 식견이 얕은 이는 오로지 한 문에
 전력함이 마땅하리라.

만약 그리할진대 비록 각자가 (제 능
 력껏) 마음의 씨를 뿌리더라도 함께 자
 비로 제도하여 한가지로 화합의 바다에
 돌아들며, 함께 해탈의 자리에 앉을 것
 이니 무릇 이와같은 즉 진실로 미혹의
 길에 지남침이 되고 (천차 만별의) 교
 문에서는 목적이 될 것이다.

龍眼

다만 스승이 치우쳐 좋다고 한 것만
 보고 드디어는 이에 국집하여 서로간에
 옳다 그르다 한다.

어찌 부처님의 뜻에 늘 융합한다 하
 겠는가.

진실로 통달하여 너와 나를 둘로 보
 지 아니하면 마땅히 서로 서로 제도하
 여 함께 기원이 무르익으리라.

其猶萬派朝宗 無非理海
 기유만파조종 무비도해
 百官理事 咸曰勤王
 백관리사 함왈근왕
 未見鴻源 派而濤聲澎湃 守一言而欲廢
 미견호원파이의백종수 일관이욕폐
 廢績
 서적

비유하건대 만파조종(많은 제후가 임
 금을 바랄하듯이)이 바다에 이르지 않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순간은 자신이 의
 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자기의 마음을 보
 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고 있다가
 깨달은 사람이나 마음을 볼 수 있지 어떻
 게 중생들이 마음을 볼수 있느냐고 보통사
 람들은 말합니다. 몰속에 있는 풀기가 풀
 을 알았다해서 비로소 몰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몰속에서 살게되고, 그것을 몰랐다해
 서 몰밖에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항상 몰속에 있습니다.
 그와같이 우리가 지금 조용히 앉아 있어보
 면 그것이 공부가 되었던 안되었던, 괴롭던
 괴롭지 않던, 깨달았던 깨달지 않았던 간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마음 속을 들여다 보니까 자
 기의 모습을 보고있는 것입니다.

왜 이리 괴롭든지 왜 이리 불안한지 편
 안한지 느낍니다. 그러나 남의 마음이 왜
 괴롭고 괴로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
 도 냄새도 아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령지만 자기 속의 생각을 남은 모르지만
 자신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용히 좌
 선을 하려고 앉아 있으면 무엇인가 괜히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거나
 깨달지 못했거나 누구든 항상 자기 마음속
 을 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좌선하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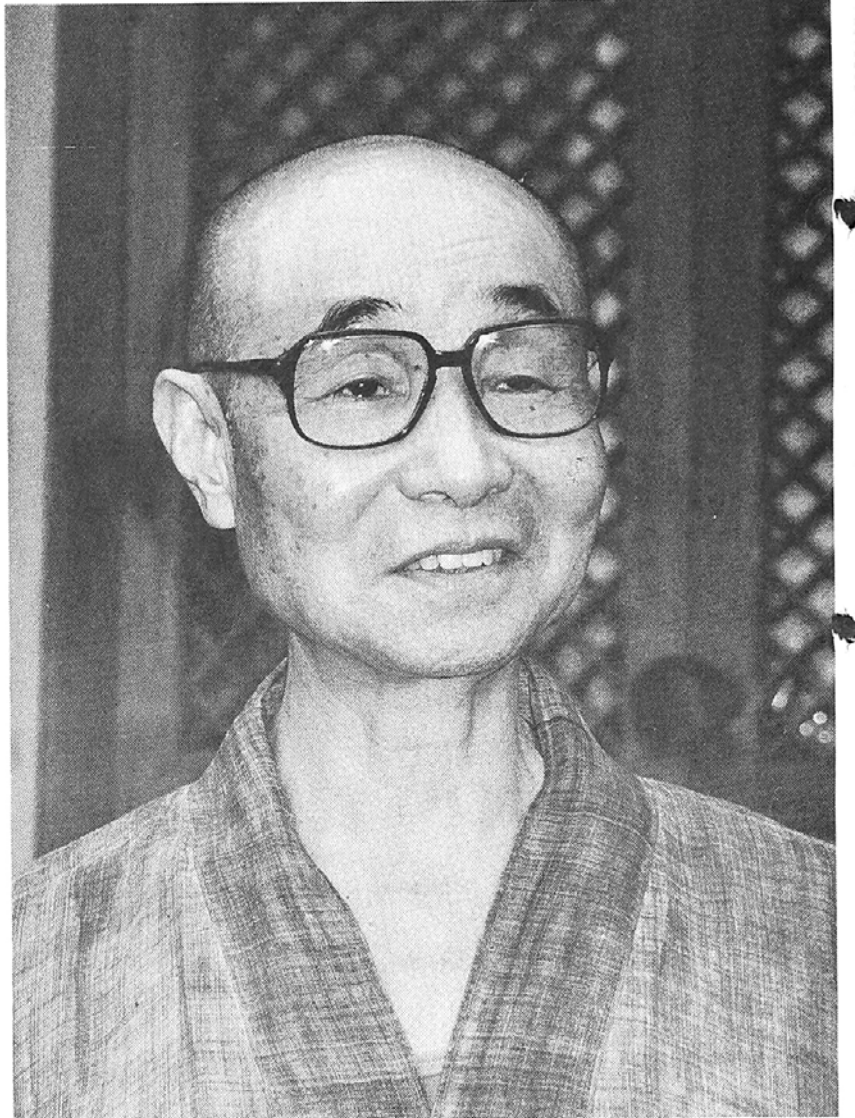
“우리가 깨어 있으면
 소리나면 소리인줄 알고
 냄새나면 냄새인줄 압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소리도 냄새도 모릅니다”

환자가 내 몸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진
 찰대에 자신을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
 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찰해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내면의 움직임과 정
 신적 육체적 상태를 느낄수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5분동안이라도 앉아보면
 느낀대로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에도 온갖 번뇌망상과 앞으로 있을 일이
 짧은 순간 영화의 화면처럼 스쳐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
 니다. 생각을 일으킬 때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을때는 생각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 본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죽비치고 앉아있는 그 순간
 부터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정하고 있을
 때의 자기 마음 속과 입장에서 나온 이후
 의 마음 속을 스스로 비교해 본다면 그것
 은 이미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하면 이렇게 내마음속에 혼침이 많은가 하
 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잠이 많다는 진
 단이 나온 것입니다.잠도 오지 않는데 어찌

지 유 스 님
 율 효 암 주 지



않지만 하면 온갖 망상이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
 에 망상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때는 소리가 나면
 소리 인줄 알게되고,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알게되고, 물건이 오면 물건인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
 령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소리가 나도
 소리인 줄 모를 것이고 냄새가 나도 냄새
 인 줄 모를 것이며 물건이 와도 물건인 줄
 을 모릅니다. 이렇게 소리를 알고 냄새를
 알고 물체있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깨
 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그림자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자기 속의 온갖 그림자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자신은 압
 니다. 잠자고 있는 무의식상태와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모를
 때 그것을 혼침이라 하고 혹은 그것을 목
 의 혼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
 음 속에는 깨어있을 때는 온갖 생각의 그
 립자인 번뇌망상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무의식 상태에 들어있으면 바
 로 혼침이 됩니다. 이 두가지 상태 즉 잠이
 아니면 망상, 망상이 아니면 혼침, 이것이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
 어느쪽이 많으실니까, 양에 관계없이 바로

이 두가지가 자기마음 속의 장애물입니다.
 번뇌가 가리고 있다해서 마음이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허공에 구름이 덮였다해서
 허공이 도망간 것이 아니듯이 달입니다.
 허공 속에 구름이 끼여 그 뒤의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 처럼, 마음 속에 혼침이 꼭
 찼다 무의식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해
 서 마음이 어디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혹은 어떤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을때 내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물건이 아니므로 잠에 빠졌다해서
 멀리 떠난게 아닙니다. 마음은 오고가고 하
 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이 오고 갈 수 없듯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 정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
 입니다.

▶ 녹수 정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
 문입니다.



▶ 녹수 정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룹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수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